



# 특화된 기술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고 기업을 꿈꾼다

(주)엑서지엔지니어링

엑서지 진단기법을 개발해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면서 새로운 에너지진단의 지평을 열고 있는 (주)엑서지엔지니어링. 우수한 에너지관리 및 환경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기술 전문 인력 확보, 고효율 에너지절약기기로 교체사업을 주도하는 등 분주하게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엑서지엔지니어링 박명호 대표를 만나 ESCO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글 편집부 | 사진 최미연

## 에너지진단과 컨설팅 노하우 갖춘 ESCO 기업

1999년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한 (주)엑서지엔지니어링(대표 박명호)은 우수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했다. 엑서지엔지니어링은 석·박사, 기술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사원들과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 특히 엑서지 진단기법을 개발해 국내 발전 및 에너지공장의 진단수준을 한 차원 높이면서 새로운 에너지진단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 발전 기술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부 중대형과제의 수행으로 실력을 인정 받았다.

“엑서지회수터빈 국산화, 중질잔사유 IGCC 타당성 검토, 엑서지스캔 개발, 해외 발전 플랜트 설계용역 다수,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기업인벤토리 구축과 CDM 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에서는 무전극 램프 및 엑서지회수터빈의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로 그린 에너지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명호 대표는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노하우의 기반으로 엑서지회수터빈(ERT) 시장개척을 통한 고속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2010년 144억 원, 2011년 179억 원, 2012년 280억 원 달성을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엑서지회수터빈(ERT) 설치 사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한다.

박 대표가 언급한 ESCO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로 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고. 그는 CDM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의 경제성 개선과 더불어 연간 약 2만여 톤의 CER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향후 여러 개의 엑서지회수터빈을 프로젝트로 CDM 사업 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 기업은 국내 최초 공정진단, 용수진단 및 폐압진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는 최초로 발전 플랜트 개념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또 국내 최초 및 최다 기후변화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서지엔지니어링 기술력의 특화된 강점을 소개하는 박 대표. 그가 언급한 기술력뿐 아니라 현재 엑서지엔지니어링은 세계 최초 이론 개발 및 특허 보유를 받은 폐압기술과 가공식품용 증숙 시스템, 무전극램프를 이용한 가로등 개량방법, 감온엑서지 회수시스템을 채용한 발전플랜트, 증기감압계통 폐압회수용 전력생산설비를 구비한 발전플랜트, 흡착식 냉동기의 폐열 재활용을 위한 히트펌프 장치, 히트펌프를 구비한 흡수식 냉동장치 등의 특허를 받아 명실상부하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 세계 최초,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특화된 기술력

다양한 에스코 설비 중에서 엑서지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자체적으로 개발한 엑서지회수터빈과 15MW급 국내 생산으로 만들어진 소형 증기터빈, 무전극램프를 꼽을 수 있다.

박 대표는 “우리 기업에서는 그간 에스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금호석유화학과 열병합 외 3개 사업장에서

## 에너지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우뚝

엑서지엔지니어링은 기술력 확보에 따른 인재 양성이나 기술 개발에 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이 다각도로 변화하는 ESCO 사업에 따른 직무 및 기술의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의 보충과 조직의 유기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비부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표준화와 각 사업부별 혁신을 분기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박 대표. 그는 미래에 적합한 고급기술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이며, 우수 엔지니어를 선발해 전문인력으로 구분·관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 대표는 “ESCO 사업을 하는데 있어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력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이지만 보다 큰 서비스, 가장 좋은 품질과 기술력에 승부수를 던지고 싶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과감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쟁력을 확보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최고 기업을 꿈꾼다는

것. 특히 엑서지회수터빈은 국산화 모델을 개발해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함은 물론, 해외 시범화 사업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부상되었다”며,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사업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현 시대에 에너지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역할을 스스로 찾고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2010년 새해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